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전홍용 편집: 양재웅

범죄자인 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 쉼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된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십자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붙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자.

2010년 제1차 청지기훈련 메시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이사야 53:12)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눅 23:34; 히 4:15, 10:5~7). 하나님을 향하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탄원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사건이다(롬 8:3~4).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히 5:6~7; 행후 3:9~10).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복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란다(시 22:12~13).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멸하고자 그 힘을 다하였다(마 21:37~38).

모든 것의 실속자 되시는 예수님 인간은 신을 죽이는 자가 되어 버렸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막 14:34). 오직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변호다(히 6:20). 우리는 늘 패락을 따라가며 죄를 따라가는 자들이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변호하여 주신다(잠 19:7). 주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지금도 잊지 않고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다(히 8:1). 황금 보석으로 장식한 영광의 찬란한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가슴과 어깨에는 온통 우리의 이름이 쓰여 있다. 성전

의 돌들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

예수님 안에 있는 확신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에 기초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사 53:12; 요 17:20). 그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믿는 자가 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 있었다. 죄인이 회개할 때 자비하신 주님은 돌아온 자들의 간구를 들어 주실 것이다(눅 15:7; 요 17:20~21). 성령의 선물인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임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결과다(계 5:8). 매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뢰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께서 믿음과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고후 1:19; 행전 5:7).

믿음의 실천 중보기도는 아름다운 봉사이며 고귀한 직분이다. 온 교회가 죄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불붙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이 서 있던 그곳에서 우리도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사 53:12). 우리의 간구가 신실하고 진진한 기도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요 13:34~35).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간구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창 32:26). 이제 우리 모두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영원한 세계로의 첫 걸음, 오늘 찬양예배 시 2010년 제1차 학습·세례식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 6:4). 2010년 첫 번째 학습·세례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에 있으니 해당자들은 4시 30분까지 본당의 정한 좌석에 앉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출반하는 이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에 갈릴리움에서 거행되니 해당자들은 2시 30분까지 갈릴리움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3월 7일) 2010년 제2차 성찬식(1~5부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다음 주일 1~5부예배 시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고전 11:25)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한 주간 성찬식을 준비하십시오. 특히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으니 꼭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월 교회일정

7일 (주) 제2차 성찬식(1~5부예배)

10일 (수)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21일 (주) 공동의회(4부예배 후)

28일 (주) 중려주일(2·3부 가족연합예배)

29일 (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성금요일까지)



THE NEW COVENANT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1 Corinthians 11:25)*

What is a covenant? A covenant is a contract or agreement made between two people or parties. Biblical covenants are agreements between God and man in which God promises to bless those who accept and commit themselves to Him and express this by living according to the contract. In the Old Testament, God made covenants with His chosen person or people — Adam, Noah, Abraham, Jacob and his descendants, Moses and David. God has fulfilled these covenants. In the New Testament, God made a covenant with the Church through his Son Jesus, which is referred to as "The New Covenant". God's New Covenant in Christ is for all people who trust in Him. When we talk of the Old Testament, we refer to the Old Covenant which is under God's law. When we talk of the New Testament, we refer to the New Covenant which is under God's grace.

In the Old Testament, Jeremiah wrote about the prediction and promise of a new covenant, "Behold,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house of Israel and with the house of Judah, not like the covenant which I made with their fathers in the day I took them by the hand to bring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My covenant which they broke, although I was a husband to them,' declares the LORD. 'But this is the covenant which I will make with the house of Israel after those days,' declares the LORD, 'I will put My law within them and on their heart I will write it; and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They will not teach again, each man his neighbor and each man his brother, saying, 'Know the LORD,' for they will all know Me, from the least of them to the greatest of them,' declares the LORD, 'for I will forgive their iniquity, and their sin I will remember no more'(Jer. 31:31-34). The function of the Old Covenant was to give knowledge of, or about sin, not to save people from sin. Paul says, "because by the works of the Law no flesh will be justified in His sight; for through the Law comes the knowledge of sin"(Rom. 3:20). The Old Covenant was by the law, and no one could be justified or saved by it. Paul continues, "But now apart from the Law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nifested, being witnessed by the Law and the Prophets,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or all those who believe; for there is no distinction"(Rom. 3:21-22). The Old Covenant was like a tutor, "Therefore the Law has become our tutor to lead us to Christ, so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Gal. 3:24). Romans 4:15-16 say, "for the Law brings about wrath, but where there is no law, there also is no violation. For this reason it is by faith, in order that it may be in accordance with grace, so that the promise will be guaranteed to all the descendants, not only to those who are of the Law, but also to those who are of the faith of Abraham, who is the father of us all."

In the New Testament, John the Baptist tells us when he sees Jesus,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Jn. 1:29). Jesus solves all our problems, "Therefore He is able also to save forever those who draw near to God through Him, since He always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Heb. 7:25). 1 Peter 3:18 explains, "For Christ also died for sins once for all, the just for the unjust, so that He might bring us to God, having been put to death in the flesh, but made alive in the spirit." The sinless Savior has taken our sins that we might have God's righteousness, "He made Him who knew no sin to be sin on our behalf, so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2 Cor. 5:21). Knowing God's grace is amazing, "knowing that you were not redeemed with perishable things like silver or gold from your futile way of life inherited from your forefathers, but with precious blood, as of a lamb unblemished and spotless, the blood of Christ"(1 Pet. 1:18-19).

My dear friends, Jesus picked up the cup during His last supper and said,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1 Cor. 11:25). Do you truly appreciate what a gracious blessing it is to live under the New Covenant? You cannot save yourself by your own efforts or righteousness; only by the blood of Jesus can one find eternal salvation. The New Covenant really came to this world some 2,000 years ago. It is a wonderful blessing. Please, let's humbly come together now and take part in the New Covenant in remembrance of Jesus Christ. Amen. 

새 언약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1:25)



김성관 목사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은 두 사람 혹은 양측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나 합의문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헌신하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총을 약속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과 그의 후손들, 모세, 다윗과 같은 당신이 선택한 개인이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들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옛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 대해 말할 때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새 언약을 뜻합니다.

옛 언약은 구원할 수가 없다

구약성경에서 에레미야는 새 언약에 대한 기대와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렘 31:31~34). 옛 언약의 역할은 죄에 대해 알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 옛 언약은 율법에 의한 것이었고 그것으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1~22). 옛 언약은 마치 초등교

사와 같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갈 3:24). 로마서 4:15~16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성취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신약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요 1:29).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 7:25). 베드로전서 3:18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 의를 입히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8~19).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5). 새 언약 아래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여러분은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나 의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2천 년 전에 정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새 언약에 참여합니다. 아멘 **M**

메시아의 죽음 23

십자가에 죽으심과 장사 지냄
(요한복음과 누가복음4)

를 참고하지 않았고 각각 다른 자료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일곱 마디의 말씀(상상칠언)을 하셨다. 이 중 요한과 누가는 각각 세 마디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 내용이 다르다.

사도 요한은 “여자가 보소서 … 네 어머니라”(요 19:26-27), “내가 목마르다”(요 19:28), “다 이루었다”(요 19:30)의 세 마디를 기록하였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를 기준할 때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성경을 옹호해 하려 하시”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요한은 밝혔던 것이다. 이에 반해 누가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이니이다”(눅 23:34),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완전히 말진하셨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 상에서 한 강도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승리임을 누가도 드러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당시 관례에 따라 신포도주가 제공되었는데 요한은 “사람들”(요 19:29)이 그것을 갔다 주었다고 밝혔고 누가는 “군인들”(눅 23:36)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에 대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약간 다르게 기록하였다. 아마도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과 누가는 서로의 자료

이 회동하면서 주었다고 기록했다.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에 대해 요한은 니고데모, 누가는 여인들이었다고 밝혔다(요 19:39~40; 눅 23:56, 24:1).

요한복음에 전혀 기록되지 못한 것 누가는 예수님이 갯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 온 천사가 도왔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눅 22:43). 또한 예수님이 당하신 고발내용, 헤롯에게 회동당한 것, 많은 사람과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로 향한 것,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를 용서하신 것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눅 23:2, 27, 43).

누가복음에 언급하지 않은 것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곳에 대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언급한 사람은 사도 요한뿐이었다(요 18:1).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가롯 유다, 로마 군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라는 것과 베드로와 요한 자신에 대한 언급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요한만이 기록하였다(요 18:3, 16). 또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현장에 있었기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과 하신 말씀, 한 군인에 의해서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모습, 니고데모에 행적까지 유일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요 19:26, 34, 39).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성취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양심에 확인 맞은(딤후 4:2) 우리에게는 의식과 거짓뿐이다. 진실로 회개하자.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를 붙들자. “한 강도가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아멘.

* 마태 22:40(새번역 44)에서 생장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부예메 메시지(2010. 2. 24)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18)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질문하였다(마 16:13). 제자들은 각각의 대답을 하였다(마 16:14).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였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인간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닌 예수님 자신이 주인 되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구약시대부터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렸다. 아담과 하와도 음부의 권세에 넘어졌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율법준수에 철저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죄를 범한 이유로 음부의 권세 때문이었다(겔 6:1~3, 8~13; 렘 9장). 신약시대에도 음부의 권세는 절대적이었다. 이와 같이 음부의 권세가 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음부의 권세는 외적으로 볼 때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가장 신뢰하고 따르는 가치관이 음부의 권세다. 우리가 갈망하는 대부분의 것이 음부의 권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것으로 음부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십자가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히 13:1~5, 12~15).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원천이다(히 13:21).

●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시 18:31, 46; 62:2; 89:26, 95:1)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교회의 기초로 삼은 돌은 예수뿐이다(사 28:16; 롬 9:33). 그러나 음부의 권세에 넘어진 교회는 세상의 것을 교회의 기초로 삼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율법적 보이기 때문이다.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땅이 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둔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1).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고전 10:4).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0~22).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지 않은 교회는 반드시 넘어진다(벧전 2:6~8).

● **무엇이 교회인가** 교회는 모든 자를 구원한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히 12:23). 가장 낮아지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다(골 1:18, 22).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반드시 한나와 밍박이 있었지만 교회는 전해야 한다(골 1:24).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엡 5:23~25). 교회는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어야 한다(벧전 2:5). 음부의 권세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고전 12:12).

● **교회는 안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될 때 교회는 안전하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시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2:10).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반드시 실패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갈 3:11, 22). 이 믿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에 사로잡힐 때 교회는 저주를 피할 수 없다(갈 1:6~8).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교회는 승리와 감사로 가득할 것이다(고후 2:14, 17).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고후 11:3~4)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매 순간 깨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자(엡 6:12).

음부의 권세는 매 순간 교회를 미혹한다. 교회를 거역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인간의 교회가 더 합당하다고 속삭인다.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 복음보다 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음부의 권세에 넘어질 때 교회는 위험하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세상 가치에 기준한 모든 인간의 목표와 계획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교회의 목표로 삼자.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데 쓰임 받는 도구가 되도록 매 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자.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신다. 아멘.



희 개

나는 천지의 영혼들을 예수님의 십장으로 선교하기를 원하면서, 또 선교 중에 부족한 나의 믿음이 한 발짝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 뵈옵고 그 음성 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선교지에 도착하였다. 이윽고 시작된 선교지에서 만난 첫 번째 영혼에게 나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긴장해서 그런지 현지어를 말하는 나의 입술은 너무나 굳어 있었다. 어떤 고난과 꺾박, 어렵고 힘들지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이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는데... 그러나 성령님은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셨고 큰 실망감보다는 추수할 곡식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비롯한 우리 팀원들은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처럼 순조롭게 선교가 진행된다 싶을 때 우리는 교만해졌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 있는 교만으로 안일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내 우리는 무슬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 팀은 다시 한 번 회개하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았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 선교지에서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배종욱(전사, 24교구)

길이 막힐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어진 마음을 모아 준비하였고, 선교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병종처럼 드미워진 아름다운 대지연을 주님께서 보게 하였다. 첫날 북쪽쪽의 한 마을로 향했을 때는 보슬비가 내렸지만 우리가 현지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쾌청한 날이었다. 많은 마을 주민들이 우리의 찬양과 율동을 함께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열렬히 도를 함께 하는 해맑은 그들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뜻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마을에서 만난 한 소년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였고, '홍이아'라는 이름의 소녀는 너무도 행복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마침 한 달 간의 새해맞이 민속명절 기간이라 많은 사람이 민속의상을 입고 신랑과 신부감을 고르는 공 돌리기 행사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었고, 그 틈에 우리는 조용히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였다. 이내 경찰의 제지를 받게 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사역을 감당하였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환자에게 담대히 나아가 팀원들이 함께 기도하였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영적으로 오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으나 기도도 말미암아 마음을 열고 기뻐하며 눈물까지 흘렸다. 그들은 부족 간에 말도 달랐고 수준은 모으므로 '내가 왜 죄인이나?'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가 구주시며, 그들의 문 앞에 세워놓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기를 기도하였다. "어느 마을에선 항상 예비해 놓으신 귀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고 전할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길이 막힐 때는 유전하게 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지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인준(전사, 24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17(월) ~ 2월 24(월)	중동부 3팀	김영은

선교지에서 온 편지 ②

진정한 기적, 거듭남

현지에 도착한 우리를 붙잡아 준 돈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천천교회의 기도입니다. 가끔 우리가 천천교회에서 파송한 단기선교팀을 만날 때, 모두 한결같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천천의 온 성도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곤세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를 힘입어 우리는 조금씩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아파트에서 모임을 가질 때 우리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교회가 될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군대도, 힘도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이 사역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고 우리는 함께 회화를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진정한 기적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기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6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정말로 그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과 예매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것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기 주님께서 일하신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떠나속 따짜아나입니다. 1953년생으로 30년간 알콜중독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우울증과 미움, 분노, 그리고 반듯하지 못한 삶으로 인한 수치

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바꿔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해 주고 저를 교회로 인도한 자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은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고 저의 모든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위의 간증을 쓰신 분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자매입니다. 30년간 알콜중독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자매를 한순간만이나 알콜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변화시켰고, 그 결과 현재 그녀는 그녀의 남편과 함께 저희 회화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송윤환(현직인 선교사) *영사(영어) 번역은 김동원 전도사(현직)가 하였습니다.



월요일새벽기도회의 말씀을 듣고

“그들 속에 제 자신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빌라도는 관청과 백성 사이를 드나들면서 재판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빌라도의 관청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계속해서 빌라도를 압박해 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얼마나 종교적 의식에 철두철미하지 모릅니까. 전통과 관습을 너무나 잘 이행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 하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은 하나같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분개함을 누그러뜨리려고 예수님을 체적으로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유대인들은 툭툭 똥칩니다. 그리고는 죄 없다 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고 누가 봐도 유명한 죄인인 바바를 죄 없다 하고 놓아 주려고 합니다.

오, 주여! 이 엄청난 일을 제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누가 봐도 죄인인 바바를 놓아 주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무섭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백성은 죄가 있다. 그들의 의식에 죄가 있고, 그들의 거룩함에 죄가 있다.”라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곳에도, 경건함을 추구하는 곳에서도, 그곳에도 죄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을 따르다고 하면서 누가 봐도 좋아 보이고, 존경할 만한 행위 속에도 죄가 묻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맹렬한지 새벽에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자마자 생각 속에 슬피 죄가 들어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마음을 들으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성령님이 보여주었습니다. 행동으로, 말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나심은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한 순간도 나의 신이 죄의 염증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나의 실력과 경험을 은연중에 드러내놓고 하는 생각과 마음들이 온통 죄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너무 간절하였습니다.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의 붉은 피로 씻어 달라고, 관청 밖의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관청 밖에 서 있는 그들 속에 제 자신도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설 수 없는 무지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죽이게 하옵소서, 이미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을 가지고 또 고민하고, 그 죽은 송장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 이제 저입니다. 주님 이 죄인에게 저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명의 성도)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는 ‘메시아의 죽음’을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유하오’를 보내며

2008년에는 주님께서 외선부 캄보디아의 교사로 보내주셨다. 거기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캄보디아 지체들을 위해 차량봉사사를 하게 되었고, ‘유하오’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우리 나이로 48세이다. 한국에 온 지 8년째이며, 40대에 한국에 와서 인지 한국말을 잘 못하였다. 나 또한 캄보디아어를 잘 못해서 우린 그저 매주 웃으며 인사하며 만나고 헤어졌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그는 믿음의 침착 깊어졌고 중현의 세례교인이 되었으며 매주 주일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나는 잘 못 알아들지만 그는 후배들에게 교회와 성경과 믿음생활에 대해 길로 돌아가는 자 안에서 얘기하곤 하였다.

나와 만난 지 1년 3개월째, 이제 그가 캄보디아로 귀국했다. 그를 보내기 전 찬송파타를 캄보디아 교실에서 초콜릿을 했고 핸드폰 사진도 찍었다. 그는 캄보디아로 가면 믿지 않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까운 교회로 가서 꼭 믿음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였다. 외선부 교사로 봉사하면서 힘들어 속상한 적도 있었지만 외국 근로자 지체들이 믿음의 신실한 자녀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감사함을 느끼며 그들로 인해 더욱 큰 은혜를 받았다. 이제 ‘유하오’가 자기의 나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더욱 굳건히 하며, 주님의 복음사역의 큰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이다.

권상득(집사, 4교구)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수련회 날은 무척 추웠다. 수련회는 10시에 시작하는데 혹시 늦게 바 아침 일찍 집을 나와 9시에 교회에 도착했다니 벌써 나보다 먼저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바는 너무 추웠으나 교회 안에 한 따듯했다. 추운 날씨에 따듯한 교회 안에 있으면 항상 예수님의 품이 생각난다. 세상에는 무서운 찬바람이 우리의 몸을 떨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따듯한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기 때문이다.

이번 겨울수련회에서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일이 너무 많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럽기만 하다. 기쁨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되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뜻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주일날 일 때문에 교회에 결석한 일과 조금 이따가는 핑계로 교회에 결석한 일이 너무 많았다. 요즘 세계 곳곳에 지진과 홍수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고 하루 아침에 마을이 없어지기도 한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이다. 만약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때 두려운 마음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정말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참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을 고백한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다. 공동체 훈련 시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수많은 시련과 유혹이 있을 것을 보았다. 마귀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나쁜 것으로 시험하기도 한다. 이런 시련과 유혹을 이기는 길은 세상에 한 논점이며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길, 좁은 길로 가는 길이다. 이번 수련회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었다.

최근호(성도, 예바다부)

새가족 / 십자가의 길

고등부 성극부

'마라나타'를 만나다!

한창 기를 발산하는 청소년 시기,
주세할 수 없는 기를 복음을 위해서 발산하는 젊은 그들이 있다.
바로 고등부 소그룹인 '마라나타'이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온몸으로 연기를 하는
'마라나타'가 표현하는 몸짓에서 십자가의 향기를 느껴보자.



▶'마라나타'란 무엇인가? '마라나타'는 헬라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부에 속해 있는 성극부의 이름으로서, 성극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소그룹입니다. (오지애)

▶성극이 좋은 점은? 성극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좀 더 쉽게 말씀을 이해시킬 수 있고 각자의 삶 속에 적용시키기에도 수월합니다. (원종건)

▶마라나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저희는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성인의 직전 단계에 와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건전하고 성숙한 신앙관을 제시하고, 성경에 기초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주님만을 높이고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마라나타의 핵심 방향입니다. (정소영)

▶마라나타 단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고등부 선후배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성극 연습을 합니다. 우선 대본을 받아 편집을 합니다. 그 후에 '코이노니아의 밤'이다. 수련회에 할 성극 리딩과 리허설을 합니다. 모임이 끝나면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성극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어 은혜롭습니다. (김현송)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그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 집중하고 있다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들이 복음을 위한 나래를 마음껏 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을 위한 관심과 격려도 잊지 말자.

취재/원종건 기자

십자가의 길

사순절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사순절 첫 주일설교를 통해서 금식 후에 시험 당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눅 4:1~2).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은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셨지만 당신의 몸을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요 6:48).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가치에 맞지 않은 역설과 모순을 가득하다.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으로 몹시 피곤하셨지만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셨다(마 11:28). 예수님은 굶주리셨지만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다(마 14:20).

또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이셨지만 세금을 내

셨다(마 17:27). 그리고 은 삼십에 팔리셨지만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놓으셨다(마 27:50).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존귀와 영광을 포기하셨다(빌 2:7). 하나님인 당신의 존귀함을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신 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빌 2:8). 이 모습에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절제와 금식, 특별재배기도와 참성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순절의 전부는 아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매순간 진실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현재 사순절 특별재배기도회(2.17~3.27)가 진행중입니다.

내일(3월 1일) 겨울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꼭이요~



구분	장소	구분	장소
영아부	제1교육관 110호	초등 1부	제1교육관 407호
유아부	제1교육관 201호	초등 2부	제1교육관 507호
유치부	제1교육관 207호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83	김영덕	20	장년2부	함윤지(4)
184	박병욱	6	청년1부	신순자(6)
185	이은아	20	청년1부	이정탁(20)
186	오태일	1	대학부	나영실(1)
187	이동훈	6	청년2부	황선혜(6)
188	김 회	18	청년2부	박영실(8)
189	장도희	18	초등1부	박영실(8)
190	장서영	18	초등1부	박영실(8)
191	정은재	4	초등1부	강순출(4)
192	서지연	14	청년2부	홍은기(4)
193	서지연	14	청년2부	홍은기(4)
194	이한성	8	중등부	김연숙(11)
195	조병희	6	초등부	권진숙(6)
196	박공주	1	청년1부	김현지(13)
197	이종민	5	대학부	이영식(21)
198	박기남	22	대학부	민병욱(11)
199	김지은	17	대학부	김영아(2)
200	나자	25	외선부	박삼성(15)
201	헤리	25	외선부	배지미(16)
202	최세르게이	25	외선부	박지미(16)
203	까짜	25	외선부	
204	박발레라	25	외선부	이교르(25)
205	고윤지	14	청년1부	윤은희(8)
206	한삼윤	21	청년1부	이민숙(24)
207	김혜원	20	초등1부	석귀주(20)
208	김영미	4	대학부	김영구(4)
209	이정훈	18	대학부	노은영(23)
210	이정민	18	고등부	노은영(23)

* 후원회원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illegible]